

## 한농연 20년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제13대 중앙 집행부는 신명을 바쳐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!

존경하는 한농연 대의원 및 회원 동지 여러분!

제13대 한농연중앙연합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박의규 입니다. 우선 작년 12월 27일 대의원총회를 통해 저와 제13대 집행부에게 보내주신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.

대의원 및 회원 동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깊은 신뢰와 애정, 한농연 조직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, 저희 제13대 중앙 집행부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. 선거 기간 동안 대의원 및 회원 동지 여러분의 말씀을 깊이 새겨, 원칙을 지키고 성실히 일하겠습니다.

무엇보다도 일선 회원 동지 여러분께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중앙연합회로 만들겠습니다. 특히 기간조직인 읍면동회와 시군구연합회의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실천하여, 한농연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핵심 농민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쏟겠습니다.

존경하는 한농연 대의원 및 회원 동지 여러분!

저와 제13대 중앙 집행부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2년은 한농연과 우리 농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입니다. 온고지신(溫故知新)의 자세로 역대 선배 회장님들께서 일구신 소중한 성과를 이어받아, 기초와 뿌리가 탄탄한 조직, 일선 회원들이 중심에 설 수 있는 한농연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.

모쪼록, 2007 정해년(丁亥年), 가정에 평온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**박의규** 올림

